

농업·농촌 자원 활용 시민 건강 돌본다

올해 1억4000만원 예산 투입

익산시가 농업·농촌 자원을 활용해 시민의 심신 건강을 돌보고, 농촌경제를 활성화하는 '치유농업 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익산시는 올해 1억4,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치유농장 육성 △사회서비스 기관 연계 치유 프로그램 △농촌 치유관광 콘텐츠 개발 등 3개 분야의 치유농업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치유농업'은 농작업, 원예, 동물 교감 등 농업 활동과 농촌 경관을 통해 정서 안정과 스트레스 완화, 건강 회복을 유도하는 새로운 농업 분야다. 건강 증진과 사회적 비용 절감, 농촌 소득 창출이라는 다양한 효과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어 주목받고 있다.

▲농업에 치유를 더하다... 치유농장 육성

시는 2022년부터 치유농장 육성 사업으로 국·도비 예산 3억원을 확보해 치유농업의 기반을 다져왔다.

시의 세심한 지원사업을 통해 △우리들의정원(원예활동) △플로리움(허브디톡스) △왕궁굿파머스(밀새싹) 등 3곳의 치유농장이 지역에 자리를 잡았다.

원예·허브·밀새싹 등 지역 자원을 활용해 개발된 각 농장의 프로그램은 참여자의 심리 안정과 건강 증진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실제 지난 3년 동안 1,720명이 익산을 찾아 치유농업을 경험했다. 이같은 프로그램들은 농촌진흥청이 운영하는 '치유농업 온(ON)' 포털에 소개돼 대중 인지도를 높이고 있다.

특히 삼기면 '우리들의정원'은 지난해 농촌진흥청 주관 중앙경진대회에서 치유농업 프로그램 분야 우수상을 수상하며 전국적인 모범 사례로 떠올랐다.

여기에 올리는 '꽃재움 농장'이 신규 지원 대상으로 추가 선정돼 꽃차를 활용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사회서비스 기관 연계, 맞춤형 치유 확산

또한 치유농업은 복지와 농업을 연결하는 '농업기반 사회서비스 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부터 정신건강복지센터, 치매안심센터, 장애인복지시설 등과 연계한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는 △우리들의정원 △플로리움 △산들강웅포마을 △미륵산늘품치유농장 등 치유농장 4개소가 참여했다.

이들 농장은 지난해 365명의 시민을 대상으로 총 34회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그 결과, 교감신경 활성화도 30% 증가, 스트레스 11% 감소, 집중력 24% 향상 등 건강 지표 개선 효과



류숙희 익산시 농업기술센터소장이 2일치유농업과 관련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년부터 치유농장 육성 플로리움 등 3곳 지역에 정착

복지·농업 연결 '농업기반 사회서비스 모델'로 자리매김 산들강웅포마을 등 치유농장서 치유농업 프로그램 운영 중

농촌치유관광 콘텐츠 개발로 체험형 관광 콘텐츠로도 활용



산들강웅포마을에서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모습.



지역에 자리를 잡은 치유농장 '플로리움'.

를 입증했다. 시는 올해 이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연계 기관 확대와 참여자 맞춤형 콘텐츠를 강화할 계획이다.

▲농촌관광과 접목한 지속가능한 모델 구축 시는 치유농업을 체험형 관광 콘텐츠로도 활용하기 위해 '농촌치유관광 콘텐츠 개발' 사업

도 병행한다. 농촌자원을 활용한 체험형 상품 개발과 플랫폼 연계 판매를 통해 치유농업의 경제적 기반을 넓혀가고 있다.

더불어 익산시는 치유농업 전문 인력 양성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농업인대학에서 치유농업 과정을 운영하고, 전북 유일의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인 전주기전대와 협력해 지역 농업인들의 2급 치유농업사 취득도 지원해 왔다. 현재까지 익산에는 총 7명의 치유농업사가 자격을 취득해 치유 프로그램 과정에 참여하고 있다.

시는 치유농업을 매개로 도시와 농촌을 잇는 건강한 순환구조를 만들고, 시민이 함께 누리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확산시켜 나갈 방침이다.

류숙희 익산시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치유농업은 시민의 건강을 돌보는 동시에 농촌에 새로운 활로를 열어주는 미래형 산업"이라며 "사회서비스 기관과 협력해 상생 모델을 구축하고, 농촌관광 콘텐츠를 다양화해 익산을 치유농업 일번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전주천을 살립시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슬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 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

전주매일 캠페인